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22 주

마음과 빛

2008년 7월 7일 ~ 7월 19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 -, 322, 497, 575 (영 334, 1132, 422, 671, 793)

성경: 여호수아 6:1-27; 7:1-26; 열왕기하 4:1-7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22 주 : 마음과 빛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5:8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고린도후서 3:16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봄

네 군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마음이 순결하면 속이 밝게 되며, 마음이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며, 마음이 청결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과 빛의 관계가 이같이 크므로 빛을 보려면 먼저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마 5:8; 6:21-23; 고후 3:16; 시 73:1, 13, 16-17).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말하기가 쉽지 않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밖은 몸이고, 속은 영이며, 몸과 영 사이는 혼이다. 마음은 영 안에 있는 것인가? 혼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마음은 양심(히 10:22, 요일 3:20-21)을 포함하고, 생각(요 12:40, 눅 2:35)과 감정(요 14:1, 눅 24:32)과 의지(행11:23)도 포함한다. 생각은 우리의 사고하는 부분이고, 감정은 우리의 느끼는 부분이고, 의지는 우리의 결심하는 부분이다. 바꿔 말해서, 마음은 영과 연결되고 혼과도 연결된 것이다. 마음 속에 생각의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은 곧 생각인 것은 아니다. 마음 속에 감정의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이 곧 감정인 것은 아니다. 마음 속에

의지의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이 곧 의지인 것은 아니다. 마음은 영과 혼 사이에 있는 것이다. 마음은 사람 전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어머함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의 마음의 어머함이 곧 우리의 어머함이다(잠 4:23).

빛은 무엇인가? 요한 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고 말해준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다.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약 1:17)이시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빛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말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에게 빛이 있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청결한 마음이란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맞추어진 것이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마음, 곧 청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6:22下**

22. ...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 **요한일서 2:10**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위할 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실족하는 형제 자매를 보지 않는가? 그들은 왜 실족하는가? 성경은, 실족한 사람은 반드시 어두움에 있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대낮인데도 넘어지는 사람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물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의 넘어짐은 그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넘어진 이유가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넘어지는 자는 어두움 안에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실족함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 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함은 그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말한다. 생각해 보라. 마음에서 하나님 외의 것은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실족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다

른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당신을 실족케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오해하고 경시하고 반대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사람의 이해나 높임이나 동정과 칭찬을 원치 않고 하나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실족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해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남이 당신을 오해하고 경시할 때 넘어지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당신이 만난 일이 현재보다 열 배나 더하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넘어진다. 이러한 사람은 어두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쪽은 태양과 같고 내 쪽은 거울과 같다. 거울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려면 반드시 태양을 향해야 한다. 언제든지 한쪽으로 빛나가면 즉시 빛을 잃게 된다.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이 빛나가면 당신의 말도 빛나가게 되고 즉시 불평불만의 말을 하고 남을 헐뜯는 말이나 트집을 잡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강한 증거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어떤 형제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한다. 마음이 아주 슬프지만 여전히 찬양한다. 어떤 일도 그들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옷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의 옷을 더럽히고 찢어버려도 화내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옷에 있다면 당신의 옷이 손실되거나 누가 옷을 만지면 화를 내며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옷에 붙잡히지 않을 때만이 빛을 보고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한다면 당신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 부모된 자에게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뜻은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붙잡혀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그들에게 빛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형제 자매는 사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밝으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식이 분명치 않다. 그들의 자녀에게 이유가 없는데도 이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만 마음이 자녀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며 빛을 얻고 보게 된다.

또 어떤 형제 자매의 마음은 금전을 사랑한다. 이러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고 밝히 말씀하셨다. 금전이 사람 앞에 놓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금전으로부터 돌리킨다면 빛이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이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당신이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는 지, 하나님을 거쳐 마음을 하나님께 바르게 맞춰 놓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맞춰질 때에 비로소 밝아지고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이유를 말하고 남에게만 잘못이 있고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다면 많은 다툼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과 사물은 말할 것도 없고 봉사의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간도 우리의 어두움으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리 큰 용도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일이나 은사에 두거나, 우리의 봉사에 성과가 있을 때 가장 쉽게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빛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며 그분 외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외의 일에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일이나 은사나 일의 성과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비로소 빛을 얻고 무엇인가 보게 된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청결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장 가련한 일이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르게 맞출 때 빛을 보게 된다. 당신에게 빛이 있으면 자연히 당신 몸에서 옳지 않은 상태가 떨어져 나간다. 마음이 옳으면 빛이 있게 된다. 빛이 임하면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빛이 많이 비칠수록 많은 것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빛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먼저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5:8, 10, 16上, 18下, 19下, 20**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6. 세월을 아끼라 ...
18. ...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늘 깊은 생활이어야 함

우리의 체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움이다.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과하였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좋아지고 능력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가 지난 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패하였고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불만족한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 우리를 채워주시고 순종하게 만들 것을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떤 견디기 힘들고 싫은 환경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명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그것들을 극복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간증할 어떤 것을 갖게되고 우리가 극복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승리를 잃게 되었고 실패가 다시 왔다. 우리는 이것은 매우 극복하기 쉽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모든 힘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또다르게 새로운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출구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것을 통과할 아무런 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전의 승리는 사라졌고 우리가 더이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런 경험을 전에 해본적 있는가? 이러한 체험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늘 깊은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워지고 더 비워져야 하며, 그러면 주님의 풍성함이 그에게 더욱 더 채워질 것이다. 첫번째 장애물을 통과한 후, 당신은 당신이 체험한 생활보다 더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모른다. 당신은 더이상 전진할 곳이 없고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모른다. 주님은 당신의 상태를 아신다. 주님은 당신이 이미 풍성한 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주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어

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은 당신 앞에 불가능한 일을 두신다. 당신의 체험에 비추어 당신은 다시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첫번째 시도에서 당신을 실패한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조심성이 없고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여기고, 두번째에는 더 많은 조심과 그 상황에 부닥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실패한다. 당신의 조심성과 노력이 여전히 모자라서 더 많은 조심과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 할 것이다. 여전히 결과는 다시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한번 더 실패하고 만다. 결국, 당신은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그 문제를 다룰 방법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왜 극복할 수 없는가 때문에 당황해 할 것이다. 왜 실패하고 왜 복종의 처음 능력이 사라졌는가를 의아해 할 것이다. 동시에 당신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깨달을 것이며, 이 실패에 대하여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더욱더 그리고 더 깊이 파해쳐서 더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이끄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으시다. 이것이 왜 새로운 어려움들이 항상 당신 앞에 있는 이유이다. 당신이 신선하게 채워지 않을 때 당신은 이 새로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당신의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을 위하여 당신 안에 더 강한 갈망과 굶주림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성령이 명하신 것이다.

☞ ☞ ☞ ☞ ☞ 목요일 20 20 20 20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시편 73:1, 25

1.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한번에 모든 승리를 취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함-앞으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함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아이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비록 아이가 매우 작고 그토록 거대한 여리고가 함락되었다 할 지라도, 만약 우리가 아이를 우리의 과거 경험을 적용하여 공격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 승리를 오늘의 영적 어려움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새로운 어려움들을 두신다. 우리는 절대로 한번의 승리로 모든 승리를 얻

있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열려야 하며,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길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극복할 수 없다. 우리를 어떤 시험이 가로막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의 역사나 체험은 더이상 힘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에 의해서 명령된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필요를 생성하려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과거의 체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속에 품어야 한다. 과거의 승리들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승리의 방법으로 새로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 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승리들을 바라보고 왜 그들이 지금 극복할 수 없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만나를 먹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새로운 어려움마다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필요가 따른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새롭게 아는 것과 그분의 새로운 이상이 없이 앞으로 전진 할 수 없다.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옮기실 때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며 우리 자신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전진은 시작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갈망을 쉽게 생성시키실 수 있다. 우리의 굶주림이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을 따라 추구했던 마음조차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나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할 지 모르겠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다. 우리는 육신의 장애와 자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무능을 깨달아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신뢰를 고집하고 우리가 이미 부요하다고 상상하고 우리의 여러고서의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추구하는 마음을 주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거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이상 전진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첫번째 체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과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현재의 힘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파내어 주셔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히브리서 6:12**

12. ...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 **히브리서 13:7**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 **요한복음 15:5**

5. ...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살아있는 믿음과 흉내내는 행실의 차이**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과거의 행실을 본받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더라도 그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히 6:12, 13:7).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행실을 본받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이다.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그림자들이나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지만(행 5:15, 19:12),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의 행실 만을 흉내낸 것이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질병을 앓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행실을 본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대신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먼 길을 간다. 믿음의 행실을 흉내내는 것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때에 이르러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다만 생각이 없는 말들이고, 습관적이고 의도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점에 이를 때,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비워지며 고백할 것이다. ‘나는 쓸모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전에 얻은 승리조차도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쓸모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낮아진다. 우리의 겸손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부풀어 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방법으로 그분을 구하기를 갈망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신 앞에 두신다. 이것들이 당신 앞에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때 당신 자신만의 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분명히 꽤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제하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 의해 제하여졌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비워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눅 1:53上). 따라서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셨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이끄셨는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낀적이 있었는가?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축복 받은 자들이다. 오직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오직 이런 자들만이 채워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좋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오직 공허함으로 던져지는 것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질 것이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영에 아무것도 없이 텅빈 자들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비어 있는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렀는가? 당신은, ‘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쓸모없는

자이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비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실 것이다.

☞ ☞ ☞ ☞ ☞ **토요일**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누가복음 1:53**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 **시편 73:26**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심**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은 무엇을 가졌는가? 그들은 오직 한 병 기름만 갖고 있었다. 이 같은 병의 기름이 후에 빈 그릇의 숫자만큼 채워졌다. 처음에 그녀가 갖고 있었던 작은 양의 기름은 매우 중요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낸다. 성령은 오직 그 안에 그 영이 있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한다.

과부의 문제는 그녀가 거의 그릇이 없었다는 것이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왕하 4:3-4)고 말했다. 그 여인은 무엇을 했는가?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5-6절) 그녀는 빈 그릇들을 빌려와야 했다.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필요함을 말한다. 그녀는 약간을 빌려오지 않았다. 이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다. 오직 하나의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빈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빈 공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빈 공간이 필요하다. 더 많은 빈 공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채워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영적 전진은 계속해서 비워지고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원칙이다. 성령의 역사는 한번 비워지면 영원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워지면 항상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워지지만 하면 더이상 비워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역사는 늘 증가하고 늘 깊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름이 부워져야 했던 장소이다. 집 안에서 문을 닫고 부워져야만 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인과 아들들과 문 안의 기름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자신을 직접 다루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어야 한다. 어려움들과 승리들은 모두 개인적이다.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성령과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성령과의 관계 뿐이다. 우리가 풍성한 영적 생활을 살 것인가 혹은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와 성령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안정시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매우 소중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령은 모든 빈 그릇과 마지막 그릇까지 채울 것이다. 만약 더이상 빈 그릇이 없다면, 더이상의 기름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하는 것은 기름인 그친 이유가 더 이상의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번째로 그친 것은 기름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소진된 것은 빈 그릇이었다. 더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그친다. 기름 그 자체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다. 소진된 것은 빈 그릇들이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기다리신다. 만약 우리 안에 무한히 빈 자리가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한한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실 것이다. 성령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빈 그릇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성령에게 줄 자리를 예비하였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자리를 제공해 드렸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더 깊이 파실 것과 성령이 채우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채우심은 우리의 비워진 정도에 달려 있다. 반복하겠지만, 우리의 비워진 정도가 지속적인 상태이어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수 없다. 성령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 분께 더 많은 공간을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채우신다. 만약 빈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더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채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배워야 하는 것

이다. 성령만이 채우실 책임이 있으시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만약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채워진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구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내고 비우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코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부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다만 비워 내쫓으실 것이다.

◆ 추구 자료 ◆

(주) 위 글은 워치만 니의 「열두 광주리 가독히」 2권 11장 「마음과 빛」 과 4권 1장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심」 에서 각각 인용하였습니다.

제 3 부: GTA 권속 교통

1. 소식 및 안내

1. MountainTop 기간동안 7명의 청소년들이 침례받았고, 63명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이 접촉하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바랍니다.
2. 5명의 중국어 성도가 최근 침례받았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3. 교회 소풍에 450 여명이 참석하였고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t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na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